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호 【루계 제24797호】 주체104(2015)년 1월 19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산림복구는 더는 미룰수 없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천만군민의 애국의 힘, 불굴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난국을 타개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령도방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진입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올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혁신하여 10년안으로 벌거숭이산들을 모두 수림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산림은 인류의 생존과 미래, 사회의 문명과 발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산림의 리용가치와 그것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은 오늘날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특히 국토의 거의 80%가 산으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복도 화도 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세기 80년대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의 산들에는 나무가 무성하였다. 그러던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부터 벗겨지기 시작하여 오늘은 수수방관할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백만정보의 산이 생땅이 드러나있는 상태이다.

산림의 황폐화로 하여 입고있는 피해는 대단하다. 지난 10여년동안 우리 나라의 많은 지역들에서 장마때마다 산사태와 큰 물로 숱한 농경지가 류실되고 살림집, 공공건물, 도로와 강하천, 철길들이 심히 파괴되여 커다란 물질경제적손해를 보게 된 근원은 바로 산에 나무가 없기때문이다. 지난해 백년래 처음 보는 왕가물과 그로 인한 물부족으로 하여 농업생산과 전력생산에서 막대한 지장을 받은것도 산들에 나무가 없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현실은 벌거벗은 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더는 물러설 길이 없으며 산림복구야말로 우리앞에 나선 사활적이고도 절박한 중대사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는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산을 완전히 수림화하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전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원대한 사회주의국토건설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산림조성사업이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진행되여왔다. 해방후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모란봉에 오르시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것은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의 새 력사를 펼친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나라의 산림자원이 줄어드는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시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중앙양묘장과 지방의 산림경영소, 양묘장들을 찾아 수놓아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을 걸음걸음 따르며 우리 인민은 지난 10여년간 산림조성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나무심기월간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온 나라가 떨쳐나 나무를 심어왔지만 우리는 결코 자만할수 없다. 현재 황폐화된 산림면적에 비해볼 때 우리가 해놓은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땜때기식으로 하여서는 벌거숭이산들을 언제 가도 수림화할수 없다. 날이 갈수록 벌거벗은 산들의 땅은 점점 더 퇴화되여가고있으며 그런 산들에 나무를 다시 심어 자래우자면 몇십, 몇백배의 품을 들여야 한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우리 당은 산림복구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총포성없는 전투로 간주하고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한것이다. 산림복구를 최단기간내에 와닥닥 끝내여 이 땅의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설레이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산들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전화위복의 투쟁이다.

오늘 산림은 경제건설과 토지보호, 환경보호, 물자원보호, 사람들의 건강증진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물과 토지, 도로, 강하천들을 보호하며 유리한 생태환경을 마련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지난 시기 나무를 망탕 베여 나라의 산림을 적지 않게 못쓰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수종이 나빠 경제적으로도 생태환경적으로도 적합하지 못한 나무들이 많았다. 우리는 산림조성도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하며 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어야 한다.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라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유훈이다. 우리 당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에 사회주의국토건설대강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마련하고 국토환경보호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이번 산림복구전투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쓸모있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생땅과 잡판목뿐이던 산들을 만복을 가져다주는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당의 이런 웅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될 때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왕가물이나 장마피해, 공해도 모르게 될것이며 우리 후대들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세세년년 행복을 누려가게 될것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대자연개조전투의 포성은 울렸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에 사회주의국토건설의 빛나는 전성기,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놓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바쳐나가야 한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를 통하여 자신들의 애국의 진가, 애국의 열도를 검증받게 된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녀야 한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어머니조국의 사랑과 은덕을 젖줄기로 하여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조국을 위해 바치는것이 있어야 한다. 나무 한그루도 제손으로 심어가꾸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이 나라의 공민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지금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황폐화된 산들을 피땀으로 걸구며 산림조성사업에 진심을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이 많다. 우리는 이런 고결한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조국의 대지에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자기 고장, 자기 고향마을의 산들이 못쓰게 되여도 량심상가책을 느낄줄 모르는 사람,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산림조성을 강건너 불보듯 하는 사람, 자기가 심는 나무에 깨끗한 량심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산림복구전투대오에 설 자리가 없다.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제살붙이처럼 애지중지 심고 가꾸어 무성할 푸른 숲에 애국의 뚜렷한 자욱을 새기려는 불같은 열정이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고패쳐야 한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산림조성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기어이 해내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현시기 산림조성이 중시되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고는 하지만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일부 시, 군들에서와 같이 아직까지 패배주의에 빠져 우는소리만 하면서 물질기술적토대도 변변히 갖추어놓지 않고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대담하게, 근기있게 일판을 전개해나가지 않고있기때문이다.

패배주의는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철저히 경계해야 할 위험한 사상요소이다. 모든 도,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사상과 방침의 절대적진리성에 대한 투철한 립장과 그것을 실천으로 빛내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만 쳐다보지 말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완강하게 毒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 조건타발과 오분열도식, 눈가림식일본새를 타파하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전무결하게 해나가는 이악한 실천력이 산림복구전투장마다에 세차게 나래쳐야 한다. 자체의 양묘장들을 튼튼히 꾸려놓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며 나무심기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산림조성과 함께 그 보호관리에 힘을 넣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보호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오늘의 산림복구가 실질적인 은을 낼수 없다. 우리가 심는 한그루한그루의 나무가 지심깊이 뿌리내리고 거목으로 자라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게 하자면 산림보호관리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산림보호관리는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며 대중자신이 다같이 떨쳐나서야 할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은 자연적인 피해보다 사람에 의한 피해가 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온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온몸이 그대로 밑거름, 버팀목이 되여서라도 나라산림을 적극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인민들의 땔감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 나무들을 망탕 찍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이 나면 귀중한 산림자원을 순간에 재더미로 만들게 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산불감시와 통보, 군중동원체계를 비롯한 산불막이대책을 정연하게 세워놓아야 한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는 나라의 전 령토를 포괄하는 대단히 폭넓고 거창한 사업이다. 주도세밀한 작전과 조직사업, 전체 인민의 사상정신적앙양을 떠나서는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담보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산림부문에 대한 전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의 승패는 전적으로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도, 시, 군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투신력에 달려있다. 나라의 전반적산림실태와 자기 지방의 구체적실정에 기초하여 산림조성계획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학교들에 조림구역과 나무심기계획을 주고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계획이나 떨구고 수자나 장악하는것은 참모일군의 일본새와 인연이 없다.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일군들은 누구나 산판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현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적극적으로, 기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산림감독기관들과 법기관들에서 감독통제사업을 원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모든 산림감독원들은 자기 담당지역의 산림이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예견성있게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고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산림복구전투를 함께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안고 산림부문 사업을 자기 일처럼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성, 중앙기관들과 해당 지역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대용자재, 대용연료를 적극 개발리용하여 나무를 극력 아껴써야 한다. 산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전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오늘의 산림복구전투가 단순한 자연개조가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것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뼈에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전투의 순간순간을 고결한 충정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들이대여 온 나라가 산림복구전투분위기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당사업과 동맹사업을 당정책관철에로 지향시켜 당이 결심한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기관본위주의와 공명심, 형식주의와 무책임성이 절대로 배겨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을 비롯한 당책임일군들은 산림복구전투를 직접 틀어쥐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특히 나라의 200분의 1을 책임지고있는 시, 군당책임비서들이 자기 시, 군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잘해야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기관차의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조성해야 할 산림면적은 참으로 방대하다. 목표와 과업은 비상히 높고 아름차지만 령도자가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사기는 충천하며 애국적열의는 천백배로 분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진두에서 이끄시는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이 영광스러운 전투기록장에 자기의 이름과 모습을 떳떳이 새길수 있게 누구나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조국찬가》와 더불어 조국의 모든 산을 푸른 숲이 무성한 황금산, 보물산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자.

오늘의 총진군에 값높은 자욱을 새겨가자

최후승리의 진군가높이 농사차비성과 계속 확대

거름생산실적 80%계선 돌파, 토지개량과 모판자재확보 힘있게 추진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열의안고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농사차비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농업성에서는 올해에 2천여만t의 거름생산 및 실어내기, 수십만정보의 토지개량 등 농사차비목표를 항목별로 높이 세우고 농촌들에서 지난해말부터 힘찬 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6일현재 거름생산실적이 80%계선을 돌파하였으며 토지개량, 흙보산비료원료생산, 모판자재확보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새해벽두부터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거름생산 및 실어내기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쳤다.

함경북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 거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김책시, 길주군의 농업근로자들이 도적으로 거름생산계획을 남먼저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황해남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질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내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시작부터 기세를 올렸다.

재령, 안악, 신천군을 비롯한 모든 시, 군들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력을 높여야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다고 하면서 높이 세운 거름생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결과 현재 도적인 거름생산실적은 90%계선을 넘어섰으며 200여만t을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도안의 농촌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에서 제일 품이 많이 드는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력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켰다. 운전군, 박천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거름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불리한 겨울철조건에서도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로력을 집중하여 새해첫 전투과제를 제일먼저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룡천군의 농업근로자들도 거름더미이자 쌀더미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원천을 총동원하여 20여만t의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고 18만여t을 포전에 실어내였다. 그리하여 수십개 시, 군들에서 매일 거름생산 및 실어내기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도적으로 200여만t의 질좋은 거름이 포전들에 실려나갔다.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한마음으로 떨쳐나선 평안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이 도시거름을 비롯한 모든 원천을 동원하여 매일 수만t의 거름을 생산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충정의 마음안고 분발해나선 도,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덕천시에서 거름생산계획을 160%이상으로 수행한데 이어 문덕군에서 16만여t의 거름을 생산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시, 군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랭습지개량과 흙깔이 등 토지개량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도의 기본혁명과업은 농사를 잘 짓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떨쳐나선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흙깔이전투에 력량을 총집중하여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신천군에서 많은 면적의 흙깔이를 한것을 비롯하여 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1만여정보의 논과 밭에 흙깔이를 하였다. 평안남도의 농업근로자들도 9 000여정보의 토지를 개량하였다. 숙천군과 덕천시에서는 수백정보, 성천군에서는 100여정보의 논에 흙깔이를 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일 목표밑에 물이 잘 스며드는 논을 조사하고 흙깔이를 질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적은 물로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랭습지개량에 힘을 넣었다. 이곳 농장들에서는 첫 전투기간에 거름생산 및 실어내기와 랭습지개량을 동시에 내밀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함경남도에서 짧은 기간에 랭습지개량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결과 전국적으로 3만 5천여정보의 논밭에 흙깔이를 하고 2만 7천여정보의 랭습지를 개량하였다.

황해북도, 평안북도, 강원도, 남포시,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는 많은 모판자재들을 준비해놓았다. 벼모기르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선천군, 정주시, 삭주군, 창성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은 모판자재확보계획의 90%를 해제끼였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수백만t의 모판용부식토를 생산하여 180여만t을 실어내는 등 높은 농사차비실적을 기록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농사차비전투에서는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에 떨쳐나섰다.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올해의 첫 세쌍둥이가 태여났다

평양산원에서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의 아이들의 첫기 겨울철야영소식으로 더욱 밝아진 내 조국땅에 또 하나의 경사로운 소식이 전해져 만사람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지난 16일 아침 평양산원에서 448번째로 되는 올해의 첫 세쌍둥이가 태여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처럼 국가가 어린이로부터 애기어머니,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남포시에서 살고있는 김혜경동무는 해당 구역인민병원에서 세쌍둥이임신부로 확정된 즉시 의료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평양산원에 입원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우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칠색송어탕과 칠색송어찜, 칠색송어기름구이 등 갖가지 영양음식들과 꿀을 비롯한 보약을 정상적으로 보장받으며 90여일동안의 입원생활을 보냈다.

세쌍둥이들이 태여났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온갖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곳 의료일군들은 김혜경동무의 건강증진을 위해 10여차례의 의사협의회를 조직하고 즉시적인 대책들을 취하였으며 보혈치료에 좋은 고려약들을 입원생활 전기간 성의껏 마련해주었다.

친혈육의 심정으로 수십일동안을 하루와 같이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온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에 의해 보다 건강해진 김혜경동무는 지난 16일 아침 순조롭게 해산하였다.

힘찬 고고성을 터치며 태여난 세쌍둥이(아들 1명, 딸 2명)의 평균몸무게는 1.98㎏이다.

산모와 사랑의 보육기에 생의 첫 보금자리를 편 세쌍둥이의 건강상태는 현재 좋다.

김혜경동무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세쌍둥이의 고고성이 한 가정의 불행을 예고하는 울음소리로 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희망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약속해주는 행복의 노래로 되여 만사람의 축복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고마운 이 제도를 받드는 길에 한몸 바쳐갈 불같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방경찬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화차를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화차를 보내줄 열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부문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우리 당의 철도현대화방침을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면서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 절실히 필요한 화차들을 더 많이 보내주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화차생산과 수리의 첫 공정을 맡은 단위들이 새해 정초부터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주강공장에서는 설비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화차수리에 필요한 주강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단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직장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매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부속품가공과 조립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1, 2가공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부속품가공을 질적으로 하고있으며 화차조립분공장의 1, 3화차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많은 량의 화차를 제때에 수리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고있다.

대차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들에서도 대고조전투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화차를 더 많이 보내줄 열의안고 새해 첫 전투부터 기세충천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참다운 애국의 진리—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는 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고동치고있는가.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우리 손으로 사회주의만복이 넘쳐나는 강성국가를 보란듯이,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리라는 철석의 신념, 우리의것에 대한 열렬한 창조정신이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자!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키자!

우리의 포부와 리상이 어떤것이며 우리가 어떤 위대한 미래를 창조할수 있는가, 우리 세대의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헌신성이 얼마나 강렬하고 숭고한것이며 조선이 어떻게 눈부시게 솟구쳐오르게 될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구절구절 새길수록 우리의 심장은 세차게 끓어번진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제일 절절하게, 제일 간곡하게 하시는 가르치심이다.

전선천리 머나먼 선군장정의 길에서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피시면서도, 현대화의 동음 울려나오는 공장들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면서도, 새로운 구상과 행복의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도 그이께서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우리 식으로 뚫고 우리의것을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신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토록 자주 말씀하시는 우리의것,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손길이 어려있고 민족의 넋과 슬기가 깃들어있으며 혁명선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고 우리 세대모두가 끝없이 창조해가는 한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이 아니겠는가.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전후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누군가 베여낸 나무의 그루터기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흐리신 안색으로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한그루의 나무라도 그것이 수십년 또는 수백년을 자라오면서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는가. 바로 이 귀중한 재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이 피를 흘렸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

이 땅에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 나무, 한포기의 풀도, 길가의 조약돌 하나도 모두 우리의것이고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지켜가야 할 재부이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토록 준절히 말씀하신것 아니랴.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외국의 인사들은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옷과 쓰고계시는 학습장뚜껑을 가리키시며 이것은 카바이드에서 뽑은 실로 짠 비날론천이고 이 책뚜껑도 석회석과 무연탄에서 만든 수지제품이라고 하시며 경제건설전반에서 주체화를 실현한데 대한 긍지에 넘쳐계시던 수령님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우에 주체의 재부, 우리의것을 채워주시여 주체의 넋과 애국의 정신만이 차넘치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얼마나 줄기차게 계승되는지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자기 힘, 자기 손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위훈이 너무도 귀중하시여 진주보석이라고 불러주신분이 바로 어버이장군님이시였고 우리 로동계급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제품을 보고 또 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그토록 기뻐하신분도 장군님이시였다.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가는 어느 한 도의 성과를 두고 그토록 대견하게 여기시며 그곳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생산한 종이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신 글발, 그것은 바로 《내 나라》였다.

비록 그것이 화려하고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다름아닌 우리의것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그토록 강렬한 사랑과 자부를 담아 쓰신것 아니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다지신 조선아 너를 빛내리, 조선아 너를 떨치리라는 맹세속에 어떤 애국의 웅지가 깃들어있었는가를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그리고 현대적인 CNC기계설비들을 비롯한 장군님 마련해놓으신 모든 재부들에서 다시금 새겨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놓으신 천만재부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 힘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변함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안겨주신 백승의 방략도 우리 식의 전법과 전술이였고 전국경공업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가르쳐주신것도 주체의 원칙이였으며 인민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신것도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지윤활유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우리 힘과 기술로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의 질이 수입제품 못지 않다고 하시였다.

세계적수준의 현대적인 천지윤활유공장을 가지고있는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공장을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정말 아쉽다고 거듭 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 얼마나 만족하시였으면 당정책이 공장의 구석구석마다에서 정확히 관철되고있는 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자기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 이 공장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크게 소개선전하여 모두가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지배인과 공장일군들에게 현지에서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까지 주시였겠는가.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은 천지윤활유공장의 연혁사에만 새겨져있는것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며 높이 평가하신것도 바로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한것이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이 공장을 돌아보면서 동무들에게 말하고싶은것은 우리 일군들이 현대화에 대한 개념을 바로가져야 한다는것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이다. …

설비를 사다가 생산공정을 조립하는것은 현대화가 아니다. 우리의 현대화는 철저히 우리 로력과 기술로 생산설비들을 개발하고 새로 만들어내는것이다!

현대화의 기준에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우리 식이란 말의 참의미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우리 원수님께서 찾으시였던 그 어디에 가보아도 그이께서 인민의 심장속에 주추돌마냥 심어주신 애국의 신념, 자력갱생의 정신이 어려온다.

손전화기에 새겨진 《아리랑》이라는 글자를 보시고 우리 상표를 단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야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줄수 있다고, 손전화기를 우리의 기술로 척척 만들어내고있는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환하신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모란봉악단을 몸소 조직해주시고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의 음악예술을 세계적수준에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음성도 들려오는듯싶다. 그런가하면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강하면 벽도 문으로 보이지만 우만 쳐다보면 열려진 문도 벽으로 보인다고 하시던 말씀이며 어느 한 기계종합공장에서 기술실무주의자가 되면 조그마한 난관앞에서도 주저하고 동요하게 되며 우만 쳐다보게 된다고 가슴아프게 하시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쿵쿵 울린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민족적자존심을 제일로 여기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각종 화장품들과 《철쭉》상표 양말을 비롯한 인민소비품들, 멋들어지게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특색있게 설치된 급강하물미끄럼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속에 마련된 이 모든것들이 다 귀중한 우리의것이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자력의 신념, 우리의것에 대한 사랑,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에 떠받들려 지난날 국제박람회장에 짚신과 지게밖에 내놓을것이 없었던 우리 민족사의 수치가 영영 끝장나고 세계의 한복판에서 당당한 존엄을 떨치는 위대한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음을 우리는 소리높이 자랑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한 존함과 더불어 우리 조국과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주의 성새, 자주적인민으로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칠것이며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라는 《애국가》의 노래는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하신 이 말씀속에는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는것인가.

무릇 사람들은 누구나 재부를 귀중히 여긴다.

그것은 사람들이 문명하고 행복하며 값높은 생활을 누리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밑천으로 되기때문이다.

하다면 사람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야 할 재부는 무엇이겠는가.

세상을 둘러보면 민족마다, 사람마다 재부에 대한 제나름의 견해가 있다.

오랜 력사와 문화유적을 자랑하는 나라, 령토의 크기를 긍지로 여기는 사람들, 발전된 경제와 물질적부를 제일로 여기는 나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것에 비할수 없는 재부가 있으며 그 재부에 대한 자랑이 크다.

생각이 깊어진다.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보고 오늘의 세계를 둘러볼수록 인간에게서 재부중의 재부, 가장 소중한 재부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기게 된다.

과연 우리 인민은 어떤 귀중하고도 소중한 재부를 안고있기에 승리와 기적의 자랑찬 력사를 수놓으며 창조와 번영의 한길로 줄달음쳐 내달릴수 있었던가.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탁월하고도 세련된 령도아래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시대정신이 빛발치는 소중한 재부들을 수없이 마련해왔으며 그 귀중한 재부들과 더불어 승리와 영광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왔다.

소 중 한 재 부

자립적민족경제, 천리마속도, 평양번영기…

자랑찬 력사속에 태여난 그 모든 귀중한 재부들이 우리 인민을 긍지에 넘치게 하였고 더욱 값높은 삶에 대한 지향을 주었다.

우리의 재부는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선군시대와 더불어 더욱 풍만해졌다.

혁명적군인정신, 혁명적군인문화, 토지정리된 사회주의전야,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정녕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소중한 재부들이야말로 이 땅우에 최후승리를 안아오고 사회주의만복을 안아올 귀중한 밑천들이 아닌가.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갈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혁명적자각과 의지에 넘쳐있다.

그것은 이 땅의 하나하나의 귀중한 재부들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체취가 어려있고 우리 조국의 빛나는 력사가 깃들어있으며 당과 수령께 충직한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고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강 철 남

모 든 것 을 우 리 식 으 로

뜻깊은 올해에 이 땅에 지심깊이 뿌리내릴 창조물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일떠설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그려보며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사상감정이 있다.

그것은 우리 식이 제일, 우리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며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려는 자각과 의지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비약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온 지난해에 천만군민은 우리 식이 제일, 우리것이 제일이라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나 착상도 설계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멋이 나게 해야 하며 작전과 실천도 우리 식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지난해 8월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비결은 우리의 자원과 원료, 우리의 기술로 건재품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한데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애국공장, 볼수록 멋있고 쓸모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수입병을 없애고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위력,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식으로 풀어나가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가 어려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라고 말씀하시였다.

찾으시는 곳,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하나의 제품,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여도 그이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라면 그처럼 만족해하시며 높이 평가하시였다.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흘리신 땀은 그 얼마였고 맞으신 비바람은 또 얼마였으며 걸으신 길은 몇백, 몇천리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로고와 헌신에 의하여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건재생산기지들이 보다 현대화되고 건설의 대번영기를 끝없이 이어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있다.

사람들이여, 이 땅에 솟아난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결코 무심히 보지 마시라. 그 귀중한 재부들에는 우리의것을 끝없이 사랑하고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조국애, 비범한 창조방식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식으로 창조하고 비약하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세기를 주름잡으며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우리의 심장의 박동으로 되여야 한다.

천만군민을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여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능수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세계를 앞서나갈것이다.

전 광 남

‖ 수 필 ‖

저 름 길

우리의것과 부강번영,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의 이 구절들을 새겨볼수록 우리의것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진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온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 천리마타일과 《봄향기》화장품…

우리의것으로 건설되고 생산되는 이러한 건축물들과 제품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행복이 커지고 부강번영이 앞당겨지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것은 우리 인민의 피땀이 스며있고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부강번영은 저절로 찾아오는것도, 누가 가져다주는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남의 자원, 남의 덕으로 순간의 복락을 누리고 한때의 성장을 뽐내다가 몰락된 나라가 적지 않다. 영원한 부강번영은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 만났던 한 일군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의 건재로 시공도 주동적으로 하고 건설속도도 마음먹은대로 높이니 힘이 막 솟구칩니다. 우리의 원료, 자재로 우리의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낼수록 부강번영이 더 빨리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의 자원에 기초하여 우리의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것이 부강번영의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군의 말을 들으며 나는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던 우리 조국의 1950년대와 60년대를 생각하였고 로동당시대의 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대와 80년대도 돌이켜보았다.

우리의 자원에 기초한 우리의 전기와 강재, 우리의 비료와 천, 갖가지 기계와 인민소비품들이 쏟아져나오던 그때에 우리 조국은 얼마나 빨리 전진하였으며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크게 향상되였던가.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였기에 우리는 리상과 목표를 높이 세울수 있었고 창조의 시간표대로 전진속도를 높여나갈수 있었다. 남의 힘, 남의 기술을 바라보고 남이 주는 자재와 설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그처럼 빨리 발전하지 못했을것이며 오늘의 높이에 올라서지 못했을것이다.

참으로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인것이다.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의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시기 위해 공장, 기업소들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불멸의 헌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뜻깊은 올해에 우리 조국은 얼마나 빨리 전진할것이며 이 땅에는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우리의것이 얼마나 많이 창조될것인가.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불타는 애국헌신에 떠받들려 10월의 대축전장을 뜻깊게 장식할 우리의 창조물, 우리의 제품들이 눈앞에 파도쳐온다.

본사기자 정 선 철

올해 총공격전의 위력한 정신적무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근본방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승승장구하는 혁명에는 위대한 혁명정신이 있다.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주고 군대와 인민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주는 고귀한 투쟁정신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조선혁명의 개척과 전진의 전력사적로정에 관통되여있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근본원천으로 되여온 바로 여기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거대한 견인력과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왜 올해 총공격전의 위력한 정신적무기로 되는가.

그것은 우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뜻깊은 올해에 당의 의도대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기때문이다.

올해는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명절들이 겹친 의의깊은 해이다. 지금 우리 당은 경사스러운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에서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이 총궐기해나설것을 바라고있다. 우리가 10월의 대축전장에 커다란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설수 있게 하는 정신적무기가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수령의 사상과 로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항일혁명선렬들에게 있어서 사령부의 명령은 목숨바쳐 관철하여야 할 지상의 과업이였다. 항일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명령관철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불가능도 몰랐다.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것이 그들의 견결한 혁명적립장이였다. 김책동지는 경제와 기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산업을 맡아보라고 하시면 산업을 맡아 추켜세웠고 병기생산을 맡아보라고 하시면 병기생산을 맡아 수행하면서 무슨 일에서나 수령님의 의도를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였다. 수령에 대한 이런 절대적이고도 무한한 충정을 간직한 혁명선렬들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그 개척기부터 수령의 의도대로 드팀없이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백전백승의 고귀한 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고 시련과 난관도 있지만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을 구현해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각오와 열정을 지니고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본보기들이 다 담겨져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본받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무비의 공격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난관극복정신을 구현해나갈 때 올해 총공격전에서 승리를 안아올수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오늘의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올수 있게 하는 불굴의 힘의 원천이기때문이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자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반제투쟁정신, 애국정신은 더없이 투철하고 열렬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된다는 강의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굶주림과 추위, 정신육체적고통을 이겨내며 굴함없이 싸웠다. 원쑤들에게 두눈을 잃고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고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철창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은 혁명선렬들의 정신세계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이런 투철한 반제투쟁정신과 애국정신이 세대와 년대를 이어왔기에 우리는 조국해방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장기간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올수 있었다.

올해의 총공격전은 제국주의와의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어째보려고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되고 꿋꿋이 이어져온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으려는 견결한 의지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틀어쥔 총대가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되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려는 반제투쟁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칠 때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이 힘있게 떨쳐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감으로써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것이다.

리 강 철

영웅26호선반에 어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여 러 가 지 형 식 과 방 법 으 로

토산군 백화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풍모를 담은 위대성자료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주별, 월별, 분기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강연회, 해설모임, 읽은책발표모임 등 위대성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과 선동원들부터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들을 보여주는 위대성자료들에 대한 학습을 심도있게 진행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아래단위에 내려간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에 대한 감동깊은 자료를 가지고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길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올해농사에서 대풍을 이룩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선물을 안고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모임을 통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올해 영농전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간직하고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갈 불타는 결의들을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리 광 복

당의 은정속에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평양시버섯공장

불타는 애국충정이 안아온 2015년의 첫 성과

공장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평양시버섯공장이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렇듯 높은 평가를 주신 평양시버섯공장은 건설초기만 해도 강냉이나 남새를 심던 나지막한 등성이였다.

이곳에 온 나라에 자랑할만한 버섯공장을 일떠세울 불같은 일념을 안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그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에 맞게 버섯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워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만족을 드린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창조적인 일본새는 정말 자랑할만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각 도, 시, 군들에 버섯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을 때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관철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 중요하게 강조된것은 시에서 건설하는 버섯공장을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짧은 기간에 건설하는 문제였다.

협의회끝에 강력한 력량으로 현장지휘부가 조직되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장지휘부에서는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건설이 시작된 첫날부터 온 건설장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건설에 떨쳐나선 평양시건설사단 돌격대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 충천하였다.

중기계들의 우렁찬 동음이 하늘땅을 뒤흔들었고 전투장에 전개된 방송선전차들에서 울려퍼지는 혁명가요가 돌격대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기초굴착이 진행되는 건설장은 말그대로 결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건설장이 수렁지대이다보니 기초굴착이 매우 어려웠다. 조금만 파들어가도 삽시에 물이 고여 애를 먹었다. 흙 한삽에 물 한소랭이라는 말도 이때 생겨난 말이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집체적협의끝에 3m에 한개소씩 물모임우물을 파고 흘러나오는 물을 빼돌리는것과 동시에 불이 번쩍 나게 콩크리트치기를 들이댈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기초가 되고 벽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공장건설을 끝내려는 불같은 일념을 안고 돌격대원들은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일하였다.

만경대구역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온몸이 그대로 물주머니가 되여도 순간도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사단적으로 제일 먼저 기초굴착을 끝내였고 룡성구역련대 돌격대원들은 새로운 기술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지휘관과 돌격대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벽체축조를 남먼저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건설현장을 책임진 시당위원회일군들인 최현철, 양영일동무들과 평양시건설사단 부참모장 리용국, 시공참모 정용수동무들은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지휘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 이끌어주는 한편 이 신작칙의 모범으로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이끌었다. 최현철동무는 시공을 맡은 일군들을 데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완공된 단위들에 직접 찾아가 그들의 안목도 틔워주고 천정과 굽도리미장을 비롯하여 내부공사는 물론 외부지대정리와 울타리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마음을 기울이였다.

그는 늘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한가지 일을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여드린다는 관점에서 깨끗한 충정을 기울이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면서 한m의 옹벽을 쌓고 한㎡의 잔디를 심어도 자신이 직접 현지에 나가 여러가지 각도에서 사색을 거듭하고 지휘부성원들과의 집체적협의를 거쳐 하나하나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버섯공장의 내부와 외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될수 있었다.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6월 건설지휘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평양시에서 건설하는 버섯공장을 온 나라의 본보기공장으로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한㎡의 미장을 해도 온 려단이 집체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세웠고 굽도리장식 한m도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엄격한 평가속에서 하나하나 완성되였다.

모든것을 최첨단수준에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이것이 공장건설에 떨쳐나선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일본새였고 투쟁기풍이였다.

내열성수지병을 버섯생산용기로 받아들이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흐름선화를 실현한것도 다 이런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투쟁기풍속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린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물론 기업관리의 경영정보체계도 당에서 바라는 최상의 높이에서 완성하려는 시안의 일군들과 연구사, 기술자들의 고심어린 탐구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여기에 평양시버섯공장을 최첨단수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다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지 못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하여 공장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실한 땀을 바친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깨끗한 마음은 공장에서 나날이 생산되는 풍성한 버섯들이 그대로 전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 수 복

값높은 평가, 최상의 믿음

들려보고싶은 공장이라시며

맵짠 추위가 계속되던 지난 1월 9일 몸소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전경을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중나온 일군들에게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생산건물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겉만 보고서도 들려보고싶은 공장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제일먼저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에 맞게 버섯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버섯공장을 온 나라의 본보기공장으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도 모든 성과를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였다.

기쁨드린 통합생산체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조종실과 접종실, 배양실, 재배실 등 공장내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이날 공장경영실태를 세심히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버섯기질성형공정, 버섯무균공정, 버섯재배공정 등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물론 기업관리의 경영정보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버섯공장에서 내열성수지병을 버섯생산용기로 리용하니 사용기간이 오래고 재생가능할뿐만아니라 종균, 배양, 재배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흐름선화를 실현하는데 유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내열성수지병을 도입한 시안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거듭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자랑할만 한 본보기, 표준공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다 돌아보시고 새로 건설한 버섯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새해벽두에 인민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평양시에서 2015년의 첫 성과를 마련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내놓고 자랑할만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평양시버섯공장은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에서 이룩한 성과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소개선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버섯공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성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공장종업원들과 뜻깊은 기념촬영을 해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대담한 목표, 자랑찬 결실

‖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버섯공장건설을 시작하면서 공장의 현대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건설에 참가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공장현대화를 실현할 자신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공장건설의 총적인 공정설계를 맡은 김일성종합대학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공장건설을 최첨단수준에서 완성하려는 확고한 배심을 안고 집체적협의를 거듭하며 건축대상규모를 확정하는 사업과 설비설계조건들을 결정하는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버섯배양과 버섯의 생물학적 요구에 맞게 모든 기술조건들을 완벽하게 제기하고 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갔다.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버섯생산의 자동화, 흐름선화, 무인화를 실현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낮과 밤을 이어 수많은 자료조사를 진행하는것과 함께 기초실험을 여러번 반복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내열성수지병에 의한 버섯재배공정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버섯생산에서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무균구역을 설계하고 시공과 검증도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1만급의 무균구역에서 접종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버섯자료기지도 새롭게 구축하고 대용기질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긴밀한 협동밑에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기할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버섯생산의 완벽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짧은 기간에 버섯생산의 공업화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내놓았다. 이들은 버섯기질성형공정에 따르는 원료분쇄로부터 이송, 저장, 혼합 등 모든 공정들의 설계는 물론 멸균기와 보이라설계 및 제작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그리고 재배공정조종체계의 설계는 물론 공정별시공과 조종반제작, 설치, 배선작업까지도 대학자체의 힘으로 직접 진행하였다.

또한 랭난방체계를 설계하고 공장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프로그람들을 연구개발하고 도입하는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어찌 이들만이랴.

평양건축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공장의 총설계를 맡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짧은 기간에 건축설계와 상하수도설계, 전기설계, 원림설계, 외벽설계 등 공장의 모든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기계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자기들도 공장건설에 한몫한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안고 기질주입기와 이송벨트의 설계와 제작을 비롯하여 공장의 자동화, 흐름선화에 필요한 설비제작과 설치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경영정보체계를 우리 기술로

평양시버섯공장이 현대화실현에서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평양시버섯공장은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물론 기업관리의 경영정보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평양시버섯공장의 현대화실현에서 본받을 점은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통합생산체계라고 하면 생산공정조종체계, 생산관리체계, 경영정보체계로 이루어졌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평양시버섯공장의 통합생산체계는 버섯생산이라는 한가지 목적을 둔것만큼 생산공정조종체계와 경영정보체계로 구성되여있다.

생산공정조종체계는 세가지로 구성되여있는데 버섯기질성형공정조종체계, 버섯무균공정조종체계, 버섯재배공정조종체계로 되여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버섯기질성형공정조종체계는 버섯이 자랄수 있는 기질을 병에 성형해넣는 공정, 원료분쇄, 이송, 혼합, 기질주입공정들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조종할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버섯무균공정조종체계는 앞에서 성형된 기질을 멸균하고 생산된 종균을 무균상태에서 접종할 때 매 방의 온도, 습도, 미립자수, 차압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접종공정을 자동조종하는 체계라고 할수 있다. 버섯재배공정조종체계는 무균공정에서 접종된 버섯균을 배양하고 재배하는 공정으로서 배양실과 재배실의 온도, 습도, 탄산가스, 빛을 버섯이 자랄수 있는 생육조건에 맞게 자동조종해주는 체계이다.

공장건설에 참가한 연구사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면서 고심어린 탐구과정을 거쳐 이 모든 생산공정조종체계를 우리 식으로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사들은 앞선 생산공정조종체계와 경영정보체계를 결합하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연구사들은 계획으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공장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콤퓨터로 진행할수 있는 경영정보체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은 공장에 국부망을 구축하고 모든 방들에서 자기 업무활동을 하면서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생산지휘를 할수 있는 수준에서 경영정보체계를 완성하였다.

평양시버섯공장건설에 참가한 새 세대 연구사들이 우리의 기술로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할수 있은것은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딛고 올라설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온 나날에 이룩한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9일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저는 그날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평양시버섯공장은 사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의 본보기공장으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현명한 령도와 다심한 은정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돌려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저만이 아닌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저는 공장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공장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겠다.

우선 버섯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짜고들며 모든 작업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표준조작법대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겠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공장의 특성에 맞게 버섯품종확대와 기질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모든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힘을 넣겠다.

또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기고 공장의 안팎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거두며 공장구내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해나가겠다.

저와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확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사시절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실천적사업성과로 보답해나가겠다.

평양시버섯공장 지배인 김 성 남

종 합 조 종 실

자 동 기 질 주 입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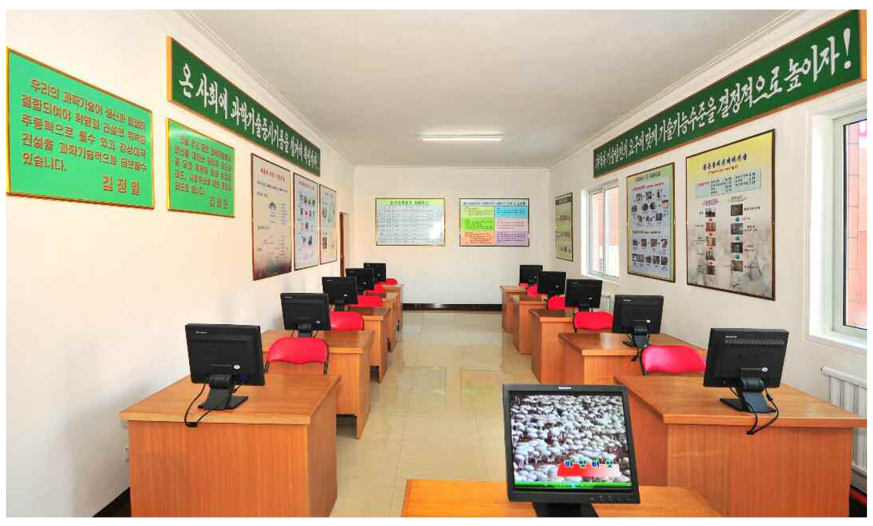
자 동 종 균 접 종 장

배 양 실 내 부

2 차 종 균 배 양 실

자 동 원 료 계 량 기

재 배 실 내 부



과 학 기 술 지 식 보 급 실

야 외 버 섯 재 배 장

무성한 푸른 숲에는 참된 애국자가 있다

덕성군 주흥리에 살고있는 전성관동무에 대한 이야기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의 호소가 천만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조국의 만년대계의 재부로 펼쳐진 이 땅의 푸른 숲에는 반드시 참된 애국자가 있는 법이다.

덕성군 주흥리의 주변산발에는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그리고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130여정보에 달하는 그 푸른 숲에는 지난 18년간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여 고향땅에 애국의 땀방울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한 인간의 고결한 삶이 새겨져있다. 그가 바로 주흥리사람들로부터 《나무아바이》로 소박하게 불리우고있는 전성관동무이다.

이 땅의 주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생을 아름답게 빛내이려고 한다. 하지만 바란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성취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충정의 한길,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게 하며 그 길에서 값높은 삶을 꽃피우게 하는것인가.

전성관동무에게 산림을 가꾸라고 떠민 사람도 없으며 또 그것은 그가 맡은 과제도 사회적분공도 아니였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리소재지에서 수십리 떨어진 드렁골의 염소방목지를 찾아갈 때만 하여도 그는 평범한 농장원이였다. 그가 받은 과업은 방목공들의 일손을 도와주는것이였다.

주의동협동농장(당시)에서 오래동안 작업반장으로 일해온 전성관동무는 몇달전 겨울 뜻밖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었다. 어느 정도 호전되였다고는 하지만 몸은 예전같지 못했다. 하여 농장에서는 그에게 작업반장사업을 인계하고 조용한 염소방목지에 가서 안정치료를 하라고 떠민것이였다.

방목지로 떠나던 날 안해 김기화녀성은 남편에게 짐을 꾸린 배낭을 지워주며 이렇게 말했었다.

《이제는 예순살도 가까운데 쉬염쉬염 일한다고 누가 탓하겠어요. …》

일년사시절 늘 분주하게 일감을 안고 뛰던 전성관동무에게 있어서 방목지에서의 생활은 단조롭고 안온하였다. 염소무리를 몰고 방목공들이 풀판을 누빌 때면 텅 빈 방목지에서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갈마들군 하였다.

(한생을 이렇게 총화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눈앞에는 청춘의 용맹이 나래치던 군사복무시절이며 제대되여 분조장, 작업반장으로 고향땅을 가꾸어가던 일들이 어제런듯 되새겨졌다. 손탁이 센 작업반장으로 불리우며 농사일의 앞장에 서던 그 나날에 대한 추억은 가슴벅찬것이였다.

한생 농사일밖에 몰랐던 그가 나무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것은 이따금 방목지에 찾아오군 하는 한 산림감독원을 만난 후부터였다. 한마을에서 자랐고 중학교상급생인 산림감독원은 고향마을의 산들이 벗겨지는것이 가슴아파 때때로 찾아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군 하였다.

《성관이, 자네도 여기 드렁골에 태를 묻었다지. 그전에는 이 골안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나.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부대기밭을 일구느라 숱한 나무를 찍고있네. 정말이지 나무를 심는것보다 찍는것이 더 많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고향땅의 진짜배기주인이 없단 말일세. 내 나이도 이제는 예순인데…》

산림감독원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때는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였다. 우리가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원쑤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겪는 어려운 식량난은 여기 산골마을 주흥땅에도 그대로 미쳤다. 산비탈들에 부대기밭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것이다.

그런 날이면 전성관동무는 온밤 잠들지 못하고 궁싯거렸다.

드렁골은 전성관동무가 태를 묻은 곳이였다. 골짜기의 어느쯤엔가 그가 태여난 화전막자리가 있을것이다. 집 아닌 그 화전막에서 해방을 맞을 때까지 다섯살이 되도록 그는 아래도리도 가리우지 못한채 산짐승같이 살아왔었다.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전성관동무는 그때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화전민가정에도 땅을 주시였을 때 그 땅에 부모가 쥐여주는 첫 씨앗을 뿌리던 일을 어떻게 잊을수가 있으랴.

(제땅 한뙈기 없어 산에 명줄을 걸었던 어제날 화전민의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지켜주시는 내 고향의 산발에 숲을 가꾸는 주인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가. 내가 이 산의 주인이 되자!)

그렇게 시작된 걸음이였다. 산림감독원에게서 직심스럽게 배워가며 맨 처음 집터밭에서 창성이깔나무모와 잣나무모를 한그루한그루 키웠다. 한두해 흘러 애써 키운 7,000그루의 애어린 나무모를 마을사람들과 함께 주변산들에 정성껏 심어갈 때 그의 기쁨과 보람은 그 얼마나 큰것이였던가.

허나 전성관동무가 고향땅의 푸른 숲에 한생을 바칠것을 결심한것은, 자기 대에 다 못하면 아들, 손자대에라도 이어가며 고향땅을 푸르게 가꾸리라 마음다지게 된 결정적계기는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이였다.

그날 그는 덕성군의 인민들이 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변의 벌거벗은 산들을 두고 가슴아파하시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되새길수록 전성관동무의 눈앞으로는 여기저기 생땅이 드러난 고향의 산발이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문득 내 고향 주흥리를 찾아주신다면?!…

태를 묻었다고 해서 결코 고향이 아니다. 내가 과연 고향산천에 심어가꾼 나무는 몇그루이고 조국앞에 떳떳하게 남겨놓은것은 또 무엇이던가.

뼈아픈 자책이 갈마들수록 혹시 주흥리를 찾아주실 위대한 장군님께 울창한 푸른 숲을 펼쳐드려 기쁨을 드리고싶은 생각이 어제날 화전민의 아들의 심장속에 바위처럼 굳건히 자리잡았다.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그였지만 다음날로 당세포비서를 찾아가 이렇게 절절히 토로하였다.

《글쎄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산림때문에 그처럼 걱정하시였다니… 장군님께서 주흥리의 벌거벗은 산발을 두고 교시하신것만 같아 전 정말 온밤 잠들수 없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저같은 당원이 천이면 뭘하고 만이면 뭘 하겠습니까.

당세포비서동무, 저에게 당적분공을 주십시오. 내 손으로 기어이 10년안에 100정보의 산림을 조성해놓겠습니다. 제가 맥을 놓고 주저앉으면, 힘에 부쳐 쓰러지면 채찍질해주십시오. 당원 전성관동무, 일어섯! 하고 매를 안기십시오.》

자책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흐느끼는 이런 당원앞에서, 자기를 키워준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을 순간순간 자각하고 한생을 다 바쳐 보답할 결의를 다지는 이런 충정의 인간앞에서 당세포비서인들 과연 무슨 말을 할수 있었으랴.

10년안으로 기어이 고향땅에 100정보의 푸른 숲을 조성하자!

이것이 전성관동무가 자기앞에 스스로 내세운 과제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예순두살이였다. 그것은 당의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순결한 혁명적의리에서 솟아난 전성관동무의 필생의 목표였다.

결정적으로 나무모가 모자랐다. 그는 안해와 함께 드렁골에 300평의 양묘장을 새로 꾸리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다. 돌을 춰내고 잡관목뿌리를 들어내며 양묘장을 걸구느라 그들부부는 집에 있는 날보다 산에 있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농장에서 일하는 맏아들이 부모를 찾아왔다. 일손을 도와주던 맏아들은 그간 몰라보게 수척해진 아버지의 걸늙은 모습을 보며 나이많은 아버지가 이런 험한 일을 하는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들 6남매를 두고 뭐라고 하겠는가고 은근히 원망조로 말하였다. 그런 맏이를 보며 전성관동무는 마디마디 그루를 박았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의리를 떼놓으면 사람과 짐승이 다를바가 뭐겠냐. 이 아버지는 화전민의 아들이고 너희들 6남매도 화전민의 자손들이다. 어데서 무슨 일을 하건 사람은 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답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이날 아들에게 피눈물나는 화전민생활에 대하여, 한생토록 받아안은 당의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많은것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는 고마운 당과 조국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후 바위돌투성이의 드렁골의 한 기슭에는 양묘장이 꾸려졌다. 오늘 그 양묘장에서 한해에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들이 생산되여 주흥리주변 산발들을 푸르게 단장해가고있다.

전성관동무와 그의 안해가 나무모를 키워내고 한그루한그루 정성껏 심어가꾼 그 18년간의 나날에는 남모르는 슬픔도 곡절도 유혹도 많았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애국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가게 한 그 힘은 다름아닌 언제 어디서나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믿고 따르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의리의 힘이였다.

한생이 모자라면 대를 이어서라도

해를 넘길수록 전성관동무는 바빴다. 봄이 오면 움속의 나무모들은 드렁골양묘장으로, 양묘장의 나무모들은 산으로 옮겨야 했다. 일이 푸른 여름 한철이면 숲을 가꾸느라, 풀거름을 장만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단풍드는 가을에는 나무종자채집을 서둘러야 하였다. 겨울에는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일감들이 있었다. 그는 늘 등에 배낭을 지고 산으로 오르군 하였다. 이런 그였기에 고향마을사람들은 《나무아바이》라고 불렀다.

또한 전임산림감독원은 아니지만 그는 우리 산림감독원이라고 불리우고있다.

한번은 주흥리농장원들이 활창대감을 장만하느라 주변산에 올랐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한대도 마련하지 못했었다. 전성관동무가 얼마나 펄쩍 뛰는지 농장원들은 나무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것이다.

《아바인 우리 주흥리사람같지 않아요. 작업반장까지 했다는 아바이가…》라고 말하며 터벌터벌 산을 내리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며칠후 산림감독원의 집에 활창대감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를 끌고 전성관동무와 농장원들이 나타났다. 산림감독원은 의아한 눈길로 전성관동무를 바라보았다.

《며칠전에 농장에서 활창대감을 구하느라 산에 올랐는데 아직 나무들이 채 자라지 못해 내가 만류했습니다. 이 활창대감들은 저 멀리 깊은 산속에서 마련한것입니다. 비록 솎은것들이지만 나라의 재산이니 감독원동무의 승인을 받자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산림감독원은 달구지에 가득 실려있는 활창대감들에 눈길을 주었다. 그것들을 해결하느라 수십리 떨어진 해발 수백m의 산발을 오르내렸을 《나무아바이》의 수고를 헤아리는 그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아바이는 오늘 우리에게 나라의 재부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가르쳐주었습니다.》

산림감독원이 감동된것은 물론이고 그때부터 농장원들도 마을사람들도 전성관동무를 우리 산림감독원이라고 부르며 존경하였다.

한그루의 나무도 제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전성관동무는 산림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나무를 함부로 찍고 산림을 파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용서를 몰랐다.

《나라의 재산인 이 산의 나무들을 가지고 제 낯내기를 하다니?!》

《당신도 이 주흥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요? 제손으로 심어가꾼 나무 한그루도 없다면 어떻게 내 고향이라고 자랑할수 있겠소?》

마디마디 가슴속을 파고드는 전성관동무의 이 원칙적이고 엄격한 요구성앞에 농장원들도 마을사람들도 자기의 량심을 비추어보군 한다. 그는 누구나 산림을 사랑하고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그 덕을 볼수 있다는것을 깨우쳐주고 말없이 이끌어주는 우리 산림감독원이였다.

해가 바뀔수록 숲은 더욱 울창해지건만 전성관동무의 마음은 조급해나기만 하였다. 밭농사, 논농사와는 달리 산에 나무를 심고 산림을 가꾸는 일은 한두해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는 자식들이 대를 이어 고향땅에 나무를 심고 푸른 숲을 가꾸는 일을 하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10여년전 군사복무를 마친 둘째아들 전기찬동무가 제대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덕성농업전문학교 입학통지서를 부모앞에 내놓으며 아들은 남들처럼 농산과에서 공부할 의향을 내비치였다. 농산과는 누구나 지망하는 학과였다. 하지만 전성관동무는 아들과 의견을 달리하였다.

《얼마전에 농업전문학교에 산림과가 신설되였다고 한다. 산림과가 새로 생긴 학과라면 어떻다는거냐. 농사는 맏이가 짓고있으니 난 네가 산림과를 졸업한 다음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하였으면 한다.》

며칠후 그는 둘째아들을 앞세우고 덕성농업전문학교 교장을 찾아갔다. 아들을 산림과에서 공부시켜줄것을 부탁하는 전성관동무의 말이 교장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내 손으로 나무를 심으며 보니 결코 한생이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 못하면 아들대에라도 우리 주흥리의 모든 산을 푸르게 하고싶습니다. 우리 둘째가 산림과에서 꼭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남기고 교문을 나서는 체소하고 등이 구부정한 로인의 모습을 교장은 이윽토록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자기 대에 못하면 아들대에라도 기어이 고향땅에 푸른 숲을 펼쳐가려는 그 결곡한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이런 사람이 애국자이다!)

전 성 관 동 무 (가운데)

지금 전성관동무의 둘째아들도 농업전문학교 산림과를 졸업하고 산림보호사업을 맡아하고있다. 아들, 딸들만이 아닌 손자, 손녀를 포함한 온 일가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가고있다.

지난해 12월초 맏아들인 전기만동무의 딸결혼식이 있었다.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 새 가정을 축복하던 그날 전성관동무가 손녀와 손녀사위의 결혼기념으로 과일나무를 심자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단을 묶은 나무모들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날 할아버지로부터 소년단넥타이를 맨 어린 손자에 이르기까지 온 일가가 산으로 올랐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모들을 마을의 야산기슭에 심으며 모두가 좋아라 법석이였다.

그날 신랑, 신부는 결혼식옷차림새로 그 뜻깊은 나무심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전성관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얘들아, 첫날옷에 흙이 묻는다고 탓하지 말거라. 너희들도 신문과 텔레비죤을 보았을테지.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를 푸른 숲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이제 이 나무들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면 너희들은 물론이고 또 너희네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조국을 받드는 일이며 우리모두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몇해사이에 더욱 머리가 희여지고 주름이 깊어진 할아버지의 모습과 나날이 무성해지는 고향땅의 푸른 숲을 번갈아 바라보는 손녀, 손녀사위의 눈가가 불그스레해졌다.

백발과 푸른 숲!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먼 후날 걸어온 인생길을 돌이켜볼 때 자기만을 위해 찍은 자욱이, 자기 하나만의 안식이나 한가정의 안락을 위한 재부만이 남았다면 백발인들 어찌 그 인생이 부끄럽지 않을수 있으랴.

손녀와 손녀사위는 자기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주며 뜻깊은 나무심기를 마련해준 웅심깊은 할아버지에게 허리굽혀 큰 절을 드리였다.

《할아버지, 저희들은 오늘을 영원히 잊지 않고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겠습니다.》

전성관동무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그가 안해와 함께 고향산발들에 심었던 어린나무모들이 이제는 거목으로 자라 열매가 주렁지고있다. 그 푸른 숲에서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또 정성껏 나무모들을 심고있었다. 이제 그 어린나무들도 키높이 자라 푸른 숲 펼치리라. 그날의 고향땅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는듯 전성관동무의 주름깊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130여정보의 푸른 숲은 그대로 주흥리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전성관동무와 안해는 그 숲에서 따들인 이깔나무, 잣나무종자로 한해에도 2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고있다. 잣나무, 과일나무들에서 따들인 열매들이 마을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뭇사람들이 푸르러 설레이는 숲을 보며 감탄할 때 우리 당의 사려깊은 눈길은 그 숲을 가꾼 애국자를 알아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푸른 숲을 묵묵히 가꾸어온 전성관동무와 그의 안해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그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다.

감격적인 그 소식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전성관동무는 목메여 말하였다.

《우리 집안에 이런 영광이 차례지다니! 어떻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는 격정에 겨워 더 말을 잇지 못해하였다. 그의 가슴속에는 자기와 안해만이 아닌 아들, 딸, 손자, 손녀모두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떨쳐나 고향땅에 무성하는 푸른 숲을 펼쳐갈 충정의 결의가 끝없이 고패치고있었다.

그것은 전성관동무의 심정만이 아니다.

오늘 할아버지, 아버지세대가 걸어간 애국의 그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불타는 맹세가 전성관동무 온 일가의 가슴속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조국의 푸른 숲은 이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나날이 무성해지고있다. 그 푸른 숲과 함께 수천수만의 애국자대오가 늘어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동석

겨울철종자불고기관리에 큰 힘을 돌고있다. —대동강양어 및 종어생산공급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은 비약의 열쇠

함흥시인민병원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대중운동은 단위마다 특성이 있기마련이다. 비생산부문인 병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생산이 아니라 의료봉사가 기본임무로 되여있고 종업원구성도 대학졸업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모든 사업이 의학과학기술과 밀착되여있는것을 비롯하여 생산단위들과는 다른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함흥시인민병원 당조직이 최근년간 대중운동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된것은 바로 단위의 이런 특성에 맞게 목표를 바로 정하고 방법론있게 사업을 전개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병원들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나부터 열까지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잘하는데 복종시켜야 하며 그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몇해전 병원초급당비서로 임명된 조명덕동무는 병원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인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잘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기쁨드리고 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병원, 자력갱생기지를 꾸려 덕을 보는 병원…

지난 기간 병원이 거둔 성과는 많았다. 그런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말하자면 대중운동을 통해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볼수 있었다.

초급당비서는 그 원인을 방법론에서 찾았다. 보건부문의 특성에 맞는 대중운동의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지 못한것이였다.

원인을 알면 방도가 나오기마련이다.

초급당비서는 원장 장훈, 부원장들인 어윤호, 김진성, 정명근동무들과 마주앉아 단위의 특성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뚜렷한 목표와 그를 수행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찾아나갔다.

여기서 그들이 찾은 방법론은 크게 두가지라고 볼수 있다.

하나는 치료예방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의사, 간호원들을 인간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고 동지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선군혁명투사들로 키우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의료일군들의 의학과학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였다.

그러면 초급당위원회가 이 두 사업을 어떻게 조직전개하였는가를 보자.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의료일군들을 환자들을 친혈육으로, 혁명동지로 여기고 헌신하는 선군혁명투사들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사상사업의 모든 계기와 공정들이 여기에 복종되였다.

특히 긍정적모범을 통한 교양사업을 중시하였다.

긍정적소행의 주인공들은 지난 시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그 모든 소행자료를 종합하여 긍정감화교양사업에 적용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부모잃은 아이들을 치료할 때 발휘된 아름다운 소행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례로 들수 있다.

자기들은 굶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매끼 따끈한 식사와 콩우유를 보장한 종업원들, 생명이 꺼져가는 13명의 아이들을 맡아 치료전투를 벌려 완치시키고 그중 6명은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녀성의료일군의 소행자료를 통한 교양사업은 실효가 대단했다.

일군들은 정성경험토론회, 부문별의사협의회, 강연회 등 여러 모임계기때마다 병원의료일군들속에서 발휘된 인간사랑의 전통적미풍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렸다. 자기들의 피와 살, 뼈를 서슴없이 바쳐 군인들과 인민들을 치료함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기쁨드렸던 사실을 통한 교양사업이 대중에게 준 영향은 컸다.

환자들에 대한 혈육의 정, 진정한 동지적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꽃펴났다.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하지만 최중증환자들의 영양식사와 약물을 전적으로 맡아 보장하면서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 환자들을 감동시킨 간장외과 과장 리룡범, 사지외과 당세포비서 한영일동무들, 운신도 못하던 사포구역의 전쟁로병부부를 친자식의 심정으로 정성껏 치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도록 한 회복치료과 과장 방민호, 안마사 김영문동무들, 집에 두고온 어린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환자의 속마음까지 헤아려보고 수백리 밤길을 달려 두 아들을 데려오고 따뜻이 보살펴준 종양예방과 당세포 당원들…

초급당위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체 종업원들앞에서 감사편지독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등록, 영예게시판에 사진게시 등 계기와 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긍정적소행들을 소개선전하고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이 과정에 병원안의 모든 의료일군들은 자신들을 인간을 사랑하고 혁명동지를 위해 헌신하는 선군혁명투사들로 철저히 준비해나가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다음으로 의료일군들의 의학과학기술실력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였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실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떠나 높은 의술을 기대할수 없기때문이였다.

매주 진행되는 병원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중요안건으로 토의되군 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활동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실습과 학술교류를 통한 자질향상, 오랜 의료일군들의 경험과 치료방법이 계승되도록 하는 문제…

할 일은 많았고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았다.

초급당위원회는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갔다.

그것이 바로 의료일군들이 실력전의 활무대, 기술혁신전장에 뛰여들도록 그들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킨것이다.

함흥시인민병원의 특허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비장적출술의 권위자이며 나이 일흔이 넘도록 간장외과 과장으로 사업해온 로의사와의 사업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경험많고 의술도 높은 그가 후비양성사업에 한몫 단단히 하면서 생의 마무리를 잘할수 있게 필요한 대책을 세웠으며 생활상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었다.

수십년간 병원에서 마취의사로 일해오면서 환자치료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수술 및 마취과 과장 리만식동무와의 사업도 그의 심리에 맞게 짜고들었다. 일흔을 퍽 넘긴 나이에도 청춘의 활력으로 일에 전심하도록 떠밀어줌으로써 그가 새 세대의사들이 전세대의 높은 의술을 넘겨받아 더 높은 수준에로 비약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에 심혼을 쏟아붓게 하였다.

일 잘하던 정보실의 녀성기사가 가정이냐 직장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동요할 때 초급당일군은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애국심의 싹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생활에서 걸린 문제도 풀어주면서 잘 이끌어주어 그가 정보화실현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초급당위원회가 대중운동에서 틀어쥔 이 두가지 방법론은 단위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안아왔다.

의료일군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새로와졌고 의료일군들의 기술실무적자질이 한층 높아져 치료예방사업의 과학화, 정보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의료봉사환경이 일신되였다.

정보실을 내오고 모든 과들에 콤퓨터를 설치하여 병원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짧은 기간에 진행됨으로써 의료일군들이 최신의학과학기술을 빨리 섭취하고 치료예방사업에 적극 활용할수 있게 되였다.

수술장과 림상과들사이에 화상전송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중요수술을 비롯한 치료사업의 콤퓨터화상협의능력이 갖추어졌다. 비장적출술에 의한 문맥압항진증치료 등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30여건의 진단 및 치료방법을 비롯하여 2백 수십건의 가치있는 의학과학기술이 개발 및 도입되였다.

최근 3년동안에만 하여도 수백㎡의 종합수술장과 처치실들의 무균화를 완전히 실현하고 야외휴식터를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과 3동의 태양열남새온실을 새로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의료봉사조건과 환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변시켰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이 병원의 당사업을 놓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 바로 이것이 비약의 열쇠, 기적창조의 보검이라는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독자의 편지

이런 일군들을 자랑합니다

정방산 성불사는 우리 인민들뿐만아니라 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오랜 력사유적입니다. 력사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우리 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여 토의사업을 진행하던 때 뜻밖에도 사리원시 책임일군들이 저희들을 찾아온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우리 정방산의 성불사를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에 대한 해설사업과 보존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관리원들을 위한 숙소건설을 시에서 맡아하겠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건설이 시작되였습니다. 박희숙, 오명진, 리영재동무를 비롯한 시의 일군들은 앞장에 서서 건설자재들을 구해왔으며 현장에서 침식을 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섰습니다.

일군들은 건설을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하면서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후방사업도 드세게 내밀면서 끝내 보름만에 새 숙소건물을 멋들어지게 일떠세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해북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 부원 류영철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민족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겨레의 가슴속에 더욱 불타오르는것은 조국통일에 대한 한결같은 열망이다.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는 가슴아픈 민족분렬의 비극을 기어이 끝장낼 애국의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의 첫아침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것은 자나깨나 통일만을 애타게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반만년의 민족사를 이어온 우리 겨레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70돐기의 년륜을 새긴 민족분렬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재난과 고통은 헤아릴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로 하여 초래되는 민족의 막대한 희생과 손실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다. 민족의 발전과 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할 막대한 지적재산과 물질적부가 겨레의 지향과는 배치되게 동족대결에 허비되는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긴장이 극도로 격화되여있는 조선반도는 크지 않은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순간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커다란 위험을 안고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은 사람도, 산천도, 이룩해놓은 모든 재부도 다 잃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다. 이로 하여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바라지 않는 외부세력뿐이다.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이 엄혹한 현실은 북과 남이 백해무익한 불신과 대결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자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이해의 정초부터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는 드세게 분출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놓을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불신과 대립의 협애한 립장에서 과감히 벗어나 힘과 지혜를 합쳐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할 책임적인 시각이다. 북과 남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과 시대와 력사의 요구를 새겨안고 진정으로 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존중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서야 한다.

북남관계문제는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렬로 하여 생겨난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오래동안 한피줄을 나눈 동족이면서도 남남처럼 갈라져 대결하여왔다. 이것은 침략적인 외세의 악랄한 분렬리간책동의 결과이다. 우리 나라가 외세에 의해 분렬되지 않았더라면 조국통일문제도 북남관계문제도 생겨나지 않았을것이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가 오래동안 지속되면서 쌓인 불신과 오해의 감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여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에 선다면 얼마든지 해소할수 있다. 민족의 피줄은 그가 어디에 살든 숨길수 없으며 한지붕아래 화목하게 모여살기를 원하는 우리 겨레의 본성적요구는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가 북남관계를 뜨거운 동포애가 차넘치는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것은 바로 단일민족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북남관계는 응당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사이의 관계, 함께 손잡고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되여야 한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운명개척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그 무엇도 우리민족끼리리념을 대신할수 없다. 더우기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극도로 격화되고있는 북남관계의 엄혹한 현실은 숭고한 민족애를 담고있고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우리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불신과 대결을 가시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미국은 지금도 북남대결의 지속을 꾀하며 동족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있다. 최근 미국은 조미관계를 극도로 격화시키면서 그 영향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차단하려고 꾀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회하원청문회에서 주제넘게도 북남대화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여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사실상 핵문제를 구실로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개선에 서뿔리 나서서는 안된다는 로골적인 압력을 가한것이다.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북남관계개선이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외세의 눈치를 살피고 그와 공조하면서 대결정책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운명에 엄중한 해만 끼치게 될것이다. 피를 나눈 동족과 손을 잡을 대신 외세와 작당하고 그의 반통일책동에 놀아나면서 민족을 반역하는것을 우리 겨레는 용서치 않는다.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침략적인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동족과 공조하고 동족과 힘을 합쳐야 한다. 시대와 력사, 민족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지금 온 겨레는 각계각층이 북과 남으로 오가며 동포애의 정을 나누던 6.15통일시대를 추억하면서 그 격정의 시대가 다시금 활력있게 이어지기를 고대하고있다. 6.15통일시대의 사변들은 우리민족끼리리념의 산물이다. 북남관계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착잡하게 얽혀져있다 해도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서로 마주앉아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해나간다면 풀지 못할 난문제란 있을수 없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동족에 대한 온갖 편견과 잡념을 털어버리며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시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에 대한 민족의 숙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철석의 의지, 대범한 립장은 지금 온 겨레를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민족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호소를 심장마다에 깊이 새기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김 향 미

《종북》광풍이 휩쓰는 민주의 무덤

이 세상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하여 범죄자로 몰려 가혹한 탄압을 당해야 하는 독재사회는 남조선밖에 없다. 최근의 사실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이 《북을 지지, 찬양》하여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그를 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어 《중대한 범죄혐의》니, 《재발범행위험》이니 뭐니 하면서 그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리고있다. 한편 재미동포 신은미가 지난해 11월 황선과 함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험담을 소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북을 찬양》하였다고 떠들면서 취조놀음을 벌리던 남조선당국은 지난 8일 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내 강제추방시키였다. 지어 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것을 문제삼아 새정치민주련합의 한 녀성의원까지 조사하고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 탄압사건은 지난해말부터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며 각계의 비난을 받아온 사건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사건은 남조선의 극우보수적인 언론들과 단체들이 통일이야기공연행사장에서 있은 황선과 신은미의 발언을 과장하여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그들을 고발하고 이어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검찰과 경찰이 폭압의 칼을 빼들면서 발단되였다. 그립던 동족의 땅을 밟으며 보고 느낀것을 이야기한것이 죄가 되여 모진 박해를 당하다 구속되고 강제추방까지 되여야 하는 이 험악한 현실앞에 남조선 각계는 물론 국제사회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리유로 탄압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며칠전 황선은 기자회견장에서 자기는 북과 남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통일운동만을 벌리였다고 자랑스럽게 웨치였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리적표현물》이라고 우겨대는 도서는 극악한 파쑈독재광인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에도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미동포교수 신은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그는 통일이야기공연행사에서 자기가 보고 느낀 소감을 아무런 각색도 없이 솔직하게 피력하였고 평화통일을 주장하였을뿐이다. 남조선당국이 시비질하는 그의 방문기라는것도 이미전에 언론에 공개된것이고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지금에 와서 요란하게 《종북》으로 몰리였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황선과 신은미의 언행은 결코 죄로 될수 없으며 오히려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서 응당 찬양받아야 할 소행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련북통일을 주장하고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진보적인사들을 덮어놓고 《종북》으로 몰며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이것을 놓고 어떻게 남조선에 민주주의가 있고 인권이 있으며 통일운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자들은 쩍하면 그 무슨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있다.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도 그것으로 비호하였다. 하다면 황선과 신은미의 행동은 왜 탄압의 대상으로 되는가.

남조선당국이 그들에 대해 《보안법》위반을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도리여 이 반통일악법철폐의 절박성을 반증해줄뿐이다. 《보안법》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지체없이 매장되여야 할 력사의 오물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진보민주인사들을 겨냥하여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종북》소동은 동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의 뚜렷한 발로로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도 찬물을 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지금과 같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인사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마녀사냥》을 하듯이 닥치는대로 탄압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상태는 언제 가도 가셔질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망동은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함으로써 《정권》안보,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계책으로서 각계의 비난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남조선당국은 살벌한 《종북》소동으로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는 파쑈폭압소동을 걷어치우고 북남관계의 개선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동족의 노력에 호응해나와야 할것이다.

라 설 하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호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현환이 4일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천명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남에게 자기의 사상과 리념, 체제를 강요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6.15통일시대에 그러하였던것처럼 북남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서 70년동안 분렬이 지속되여온것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과 적대시정책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남조선당국과 함께 해마다 끊임없이 대규모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왔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글은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선통일을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제안

오스트리아단체와 인도네시아인사 강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에 오스트리아단체와 인도네시아인사가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련대성위원회는 5일 성명에서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조선해방 7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조선반도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진지한 평화협상에 나설것과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도네시아전국운수로조련맹 위원장 샤프릴 아르시야드는 12일 담화에서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방안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자면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년례적으로 벌리는 각종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고 조선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올해에도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성실히 리행하여 평화와 통일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진정한 마음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와 실질적인 전진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는 길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갈라져 살아왔다. 분렬의 장벽에 가로막혀 서로 오가지도 못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사이에도 마음대로 소식 한장 전할수 없었다. 이 과정에 북남사이의 불신과 오해의 감정도 커갔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도 장애가 조성되였다. 수천년동안 하나의 피줄과 언어,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우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비극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과 남은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수 없으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반드시 이어야 한다. 그것이 지체될수록 민족적공통성이 훼손말살될수 있는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것을 과연 허용할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이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다시 이어 본래의 모습으로 재결합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은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이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과정이다.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은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합쳐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도로 된다.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된 6.15통일시대의 현실은 대화와 협력이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공고히 하며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주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과 남은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의의있는 당국대화들이 진행되고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사이의 교류와 접촉이 다방면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이 과정에 민족적뉴대는 강화되고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들이 련결되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것은 북남관계의 획기적발전을 추동하였고 민족의 단합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하였다.

6.15의 기치밑에 마련된 북남관계의 성과들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에 의해 여지없이 말살당하고 북남관계가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는 대결시대에로 되돌아간것은 실로 통분할 일이 아닐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이 중단된 지난 7년간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대결의 방법으로는 결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민족의 생사존망마저 위태롭게 된다는것을 절감하였다. 동족끼리 서로 적대시하며 대결하면 피해를 볼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적극 되살리는 길만이 우리 민족의 출로이다. 북과 남은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관계개선의 확고한 의지와 애국애족의 뜻을 안고 서로 마주앉으면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방도들도 찾을수 있다.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시간과 정력을 랑비하지 말고 대담하게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며 교류와 접촉을 다방면적으로 실현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자주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년초부터 남조선에서 요란하게 벌어지고있는 전쟁불장난소동과 불순한 삐라살포, 진보민주세력을 우리와 결부시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종북》소동은 동족의 진정어린 대화의지를 우롱하는 행위로서 북남대화의 실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온 겨레가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자고 떨쳐나서고있는 이때에 아직도 낡아빠진 대결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헐뜯으며 대화를 가로막고 끝없는 대립과 론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것은 죄악이다.

지금이야말로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대결의 악습과 과감히 결별하고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미 력사적인 신년사를 통해 북남대화문제와 관련한 원칙적립장과 대범한 제안을 남측에 명백히 천명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여 민족적뉴대와 혈맥이 이어지고 온 겨레의 통일기운이 전민족적범위에서 고조될 때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은 반드시 열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반통일책동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악랄한 반통일음모, 로골화되는 대화파괴책동

조국해방 70돐이자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조국통일운동의 획기적전진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의지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지금 남조선에서 이와는 반대로 대결과 긴장을 고취하는 소동들이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새해벽두부터 인간쓰레기들이 남조선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련천을 비롯한 군사분계선일대를 싸돌아치며 백수십만장에 달하는 반공화국삐라를 우리측 지역에 뿌리는 도발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에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한사코 도전하며 도처에서 각종 전쟁연습들을 광기적으로 감행하였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 온 민족이 힘을 합치자고 하는 때에 이런 반공화국적대행위들을 공공연히 감행한것은 그야말로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격의 고약한짓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있으며 국제사회도 《대화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하다면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반통일책동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 하나만 놓고보자.

최근 인간쓰레기들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극히 불순한 영화를 수록한 DVD와 USB기억기를 우리측 지역에 뿌리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이 폭로한데 의하면 인권재단의 탈을 쓴 미국의 한 모략단체는 인간쓰레기들에게 DVD와 USB기억기를 쥐여주면서 새해벽두에 우리측 지역에 수천개를 시험적으로 뿌리라고 부추겼다.

얼마전 미국에서 발표된 반공화국모략소동의 강화를 위한 행동요청서라는데는 인간쓰레기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무인기를 동원하여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적극화할데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도발적인 제안》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 반공화국모략각본의 고안자는 바로 미국의 악명높은 전 대통령 부쉬이다.

북남관계파괴에 피눈이 되여 돌아친 부쉬의 죄악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가 활력있게 전진하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부쉬는 《남북관계개선속도를 조절》하라고 남조선당국에 로골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남조선언론들도 《풀릴만 하면 꼬이는 남북관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폭로하였었다.

곡절많은 북남관계사에 지울수 없는 범죄의 흔적을 남긴 반통일의 괴수가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에 대한 지원을 떠벌이며 또다시 북남관계파괴의 마수를 뻗치고있는것은 결코 력사의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날로 더욱 악랄하고 음흉해지는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지금 미국은 핵소동과 함께 《인권》모략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의 인간쓰레기들을 전면에 내세워 반공화국심리전에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무슨 《전초병》이니 뭐니 하고 인간쓰레기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범죄행위를 극구 부추기고있는것도 미국이며 이것들에게 삐라살포에 필요한 기술자료들을 넘겨주고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있는것도 미국이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무성이 2009년부터 해마다 남조선의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쏟아붓는 자금은 무려 100여만 US$에 달한다.

미국은 이렇게 조국을 반역한 인간추물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강화하는 한편 저들이 직접 나서서 북남대화분위기를 파괴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자국의 영화제작보급사인 《쏘니 픽쳐스》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터무니없이 우리와 련결시키며 반공화국제재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 행정명령을 발동한것은 그 한 실례이다.

미국은 조미관계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는 수법으로 남조선당국에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에 나서지 말라는 로골적인 신호를 보내고있다. 미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저들의 흉측한 속심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다.

미국의 책동은 명백히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비렬한 책동으로서 어제도 오늘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미국의 반통일적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현실은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끝장내지 않는 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힘있게 추동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다시금 뼈저리게 새겨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이 그에 훼방을 놓는 가증스러운 원쑤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반미투쟁의 불길을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사기자 은 정 철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 해상합동군사연습 감행

남조선인터네트신문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지난 13일과 14일 조선동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군 7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 《머스틴》호와 남조선해군 1함대 구축함 등 선제공격수단들이 여기에 투입되였다고 한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무슨 《정례훈련》이라는 간판을 내들고 이번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정체를 가리워보려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새해벽두부터 남조선에서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동족대결을 고취하는가 하면 조선동서해상에서 실탄사격연습이 감행되는 등 북침불장난소동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지어 미국과의 련합체제가 있는 한 군사연습을 지속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은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정치적기도로 단죄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대학생들이 13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모임을 가지고 미국의 대조선제재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남북관계개선분위기가 조성된 때에 미국이 《쏘니 픽쳐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사건을 구실로 북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로써 남북관계발전에 난관이 조성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의 제재소동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정치적기도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중단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소동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이 《쏘니 픽쳐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사건의 배후를 북으로 지목하면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이 해킹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북의 공동조사요구도 거부하였다고 단죄하였다. 더우기 《쏘니 픽쳐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바마행정부가 이를 구실로 제재를 가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심에 넘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아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오늘의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할소리를 다하며 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하고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을 련이어 취하면서 미국의 무모한 반공화국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자주와 정의의 성새로 세계 진보적인류의 찬사를 받고있다.

우리 조국의 지위와 국력은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다. 이 벅찬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온 결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에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 어느 나라나 민족도 침략과 략탈, 지배를 받으며 억눌려사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요구는 그 어떤 의사나 욕망, 우연적인 요인이나 사변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오직 강력한 힘에 의거하여 투쟁할 때만이 실현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국제무대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돌발적인 사건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두 초대국을 중심으로 한 대립관계가 허물어지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시기의 동서랭전은 조미대결로 압축되였다.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패재를 불렀다. 미국은 추종세력들과 국제기구들까지 동원하여 반공화국핵소동을 몰아왔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우리에게 로골적인 군사적위협공갈을 들이댔다.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달았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진두에 서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사회주의수호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자신만만하게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세에 질겁한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뻐젓이 올려놓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였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주눅이 들어 손을 들고 대화를 구걸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미국은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 배짱을 보지 못하였다.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것을 명백히 한 이상 우리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우리는 미국의 더욱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키였다.

미국이 우리를 고립약화시키고 먹어보려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그 누구도 감히 넘겨다볼수 없는 자주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 봉쇄의 도수를 더욱 높여 우리의 목을 졸라 핵억제력을 허물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장기화될것이며 조미대결이 더욱 치렬해질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었다. 더우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은 우리가 그것을 억제할수 있는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로선, 병진로선을 내놓았다. 우리 공화국은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평화적환경속에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가 선군의 기치높이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여온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우리 공화국은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이다. 이런 우리 나라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정면대결하여 맞받아싸워온것은 실로 기적이 아닐수 없다. 사실 지난 시기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에 이른적은 한두번만이 아니였다. 그때마다 미국은 숱한 무력을 동원하였으나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하였다.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작용하였기때문이다.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공화국을 최대의 적수로 보고있다. 이로부터 우리를 첫번째 공격목표로 삼고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다. 방대한 핵무력을 동원하여 핵불장난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를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다. 미국도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자인하고있다. 이로부터 비렬하게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다.

만일 우리가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가지 않았다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수도 없었을것이며 경제강국건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주권침해행위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전란과 류혈참극이 계속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정당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과 침략으로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정치세력, 교파세력들사이의 분쟁이 격화되여 인민들은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그렇게 된것은 이 나라들이 대국들에게 기대를 걸고 자기 힘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어떤 나라는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제국주의자들의 회유와 압박에 못이겨 전쟁을 피하겠다고 거듭되는 양보를 하다가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까지 포기하였다. 결국 차례진것은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은것뿐이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한걸음의 양보는 백걸음, 천걸음의 양보를 가져온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라크가 바로 그렇게 되였으며 그후에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되였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강한 전쟁억제력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이 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고 인민들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이것은 지나온 력사가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우리는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허리띠를 조이고 강력한 핵억제력을 마련해놓은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긍지와 자랑으로 여긴다.

우리의 선군정치와 핵억제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선군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그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다.

리 학 남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주장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면철회하라

국제사회계는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 까르야》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나라들사이의 균형적인 지위가 보장되고있는 시기에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이 지속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과 제재로 조선의 평화적발전은 커다란 장애를 받고있다.

조선에 대한 압살책동은 백해무익한 행위로서 이러한 책동은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분노만을 더욱 폭발시킬뿐이다.

뽈스까공산당 와르샤와지구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떠돌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핵위협과 공갈, 《인권》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관련되여있다.

미국은 각종 살인장비들을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리면서 오히려 긴장격화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씌우려 하고있다.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이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이제는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인민의 평화적발전과 복리에 대해 걱정한다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지속은 공화국의 경제적발전을 저해할뿐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미국이 주권국가의 제도변경을 강권으로 실현해보려는 침략정책을 바꿀것을 요구한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세기를 이어 가증시켜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종국적파산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발악해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은 변함없이 꿋꿋이 전진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인 조선인민은 미제의 전례없는 압살책동속에서도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로운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을 배격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쎄르게이 나리슈낀이 1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최근 프랑스에서 있은 테로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정치가들은 현 세계의 실질적인 위협과 가상적인 위협도 가려볼줄 모른다고 조소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이 오데사에서 50명이상의 사람들을 산채로 불태워죽인 끔찍한 참사에 대해 서방의 정치가들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문제시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다고 비난하였다.

경 제 침 체 , 실 업 자 증 대

—일본에서 경제형편이 계속 악화되고있다.

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에 공업생산량과 취업형편 등 경제실태를 보여주는 주요경제지수가 그 전달보다 1점 떨어졌다고 한다. 9일 일본내각부가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심각한 경제침체로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당하고있다. 7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파산된 기업체들의 수가 그 전해에 비해 2.7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이 악화되고있다.

2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지난해 12월에 제작업부문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그 전달보다 3.2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지난해 11월에 무역적자가 9억 2 500만 $A(오스트랄리아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5% 더 증대된것이라 한다. 6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도이췰란드에서 지난해말현재 실업자수가 289만 8 000명에 달하였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또한 이딸리아에서 지난해 11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해 같은 달보다 8.3% 증대되여 340만명에 달하였다. 결과 실업률은 13.4%에 이르렀다. 7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에스빠냐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실업자수가 444만 7 711명에 달하였다. 5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까지의 1주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29만 8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약 2만명 더 많은것이라 한다. 최근 미로동성이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일자리축감사태가 벌어지고있다.

최근 이 나라 총무성은 2014년 11월에 제작업부문에서 일자리가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29만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애국심을 발휘할데 대해 강조

세이쉘대통령 제임스 알릭스 미쉘이 신년연설에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전체 주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가 새해의 주제를 《세이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단결하여 공동의 목적달성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모든 세이쉘인들을 고무추동하자》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준법기풍을 확립하여 나라의 보다 높은 질적발전을 지향할것을 호소하였다.

나라의 평화적발전을 호소

모리셔스대통령 라즈케쉬우르 푸라그가 신년연설에서 나라의 평화적인 발전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모리셔스는 발전도상나라로서 많은 사회경제적도전들에 직면해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모든 주민들이 협력할 때에만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라고 말하였다.

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그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로서 효과적이고 책임적인 활동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사대국화야망실현을 위한 군비증강책동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11일 일본당국은 2015년도 예산에서 거의 5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할당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로써 그것은 련속 3년째 증대되여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군사비에는 미군용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 5대, 《F—35》전투기 6대의 구입과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의 도입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로씨야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최근 로씨야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는 올해 약 700대의 장갑기재들과 1 550여대의 각종 자동차, 126대의 비행기와 88대의 직승기, 2척의 다목적잠수함과 5척의 해상전투함선 등이 련방무력에 취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성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새로운 국가방위계획을 작성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로씨야의 반마약경찰이 올해에 들어와 12일현재까지 1.5t이상의 각종 마약을 압수하였다.

이 기간에 적발처리된 마약밀수범죄건수는 약 700건에 달하였다 한다. 13일 이 나라 련방마약류통통제국장이 밝혔다.

이 란 에 서

이란에서 최근 새형의 국내산 무인기가 공개되였다.

《호마—2》로 불리우는 이 무인기의 무게는 260㎏이고 작전반경은 100㎞에 달한다고 한다.

무인기에는 촬영기가 설치되여있으며 미싸일이나 폭탄들도 탑재할수 있어 순찰 및 정찰, 전투활동에 리용될수 있다.

또한 이란에서 올해 3월 20일에 끝나는 현 이란년도의 첫 9개월동안에 원유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액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대되였다. 11일 파르스통신이 전하였다.

탄자니아, 기네에서

탄자니아에서 지난해 12월에 인플레률이 그 전달에 비해 1% 감소되여 4.8%에 이르렀다.

8일 이 나라 전국통계국이 밝혔다.

기네에서 2014년에 인플레률이 2010년의 23%로부터 10%이하로 줄어들었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남아프리카의 경기장

비렬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오늘의 세계

지난 2일 팔레스티나가 국제형사재판소가입을 정식 신청하였다. 팔레스티나가 국제형사재판소가입을 신청한데 대해 여론들은 중동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무차별적인 살륙만행을 감행하고있는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전하고있다. 팔레스티나는 이미전에 강점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여 이스라엘을 전쟁범죄로 제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17년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령토인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에서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부결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적극 비호두둔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에 기인된것이였다. 그러나 팔레스티나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문건들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중동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창건하려는 팔레스티나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이룩된것이였다.

국제사회계는 팔레스티나의 이번 국제형사재판소가입신청을 적극 지지하며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유엔은 팔레스티나의 가입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팔레스티나가 오는 4월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 가입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의 국제형사재판소가입신청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무슨 대응이니, 보복이니 뭐니 하면서 쌍방사이의 관계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다.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는 팔레스티나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다면 즉시 대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위협하였으며 팔레스티나에 세금소득분을 지급하는것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에 지급하고있는 세금소득분으로 말하면 특혜가 아니라 국제법상요구에 따라 마땅히 지불하게 되여있는 몫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의 모든 국경통과지점들을 통제하고있다. 그것으로 하여 팔레스티나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손을 거치게 되여있다. 이스라엘은 그 제품들에 대하여 세금을 받아들이고있으며 그중 일부를 팔레스티나에 넘겨주고있다. 남의것을 가지고 제것처럼 생색을 내다 못해 걸핏하면 그것을 자르겠다고 으르렁대는 이스라엘의 처사야말로 날강도적인 행태가 아닐수 없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에 지급하고있는 세금소득분은 년간 10억US$이상으로서 팔레스티나국가예산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중단하기로 한 액수만도 1억 2 000여만US$나 된다고 한다. 그들의 목적은 세금소득분지급을 중단함으로써 팔레스티나정부로 하여금 병원과 학교들을 운영할수 없게 하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불할수 없게 하려는데 있다. 이스라엘라지오방송은 팔레스티나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징벌조치도 취해질수 있다고 전하였다.

이스라엘은 현재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팔레스티나가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들에 대한 가입을 취소하게 만들며 그들이 무력해져 저들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바라고있다.

팔레스티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강도적인 요구에 단호히 맞서나가고있다.

팔레스티나수석협상자는 어느 한 통신에 이스라엘의 세금소득분동결조치는 팔레스티나정부의 쇠퇴를 노린 징벌조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행위들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유엔주재 팔레스티나상임대표는 이스라엘의 처사를 《뻔뻔스러운 도적행위》로 묘사하였다.

오늘 팔레스티나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있으며 이미 백수십개의 나라들이 팔레스티나를 국가로 인정하고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고립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러한 시대적흐름을 똑바로 보고 대세를 따라야 한다.

본사기자 신 경 섭

규탄배격받는 서방의 제재책동

서방세계가 미국에 추종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고있다. 그러한 책동은 명백히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 그 나라들을 저들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

때문에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에 강경한 대응책으로 맞서고있다.

얼마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반파흐라비봉기기념일에 즈음하여 한 연설에서 미국 등 서방이 경제제재문제를 가지고 자국의 존엄과 가치를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절대로 접수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의 핵회담에서 대이란제재를 철회할것이라는데 대해 확신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대신 자기 나라는 《저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란은 자국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협상하고있다. 미국 등 서방나라들은 경제제재를 무기로 하여 이란의 평화적핵활동권리를 빼앗으려 하고있다.

이란이 핵협상에서 경제제재해제에만 매달린다면 경제제재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이 카메네이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면역을 키우는것만이 적들의 책동을 제압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외신들은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연설은 경제제재해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국의 핵활동권리를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립장을 재삼 강조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제재대상에는 로씨야도 올라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문제를 놓고 로씨야를 굴복시키고 전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해 반로씨야제재조치들을 련속 취하였다. 그로 하여 지금 로씨야는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있다.

그러나 로씨야는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용납치 않으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여러 기회를 통해 자국이 제재만 받고 살지 않을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지난해말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서방의 제재로 로씨야의 경제가 심한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현 상황이 자국의 생산기업들에 추가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 계기로 될수 있으며 이것은 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시초로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자기 나라는 제재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재해제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등의 수단으로 자기 의사를 세계에 강요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로씨야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씨야는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처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위치한 여러 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지금 국제금융자본이 미국과 유럽동맹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로씨야가 제재로 하여 겪는 경제적난관이 일시적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과 경제협조를 강화하는 경우 몇년후에는 이 지역의 덕으로 난관에서 능히 벗어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협조의 기본방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린 뿌찐대통령의 결심이 옳다고 평하고있다.

한편 로씨야는 미국 등 서방나라들의 제재책동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유럽위원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등 서방의 대로씨야제재에 대응하여 로씨야가 제재조치들을 취할 경우 유럽동맹이 올해에 근 620억US$의 손실을 볼것이라고 한다.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로씨야제재책동이 별로 은을 내지 못하고있으며 도리여 그것은 십중팔구 누워서 침뱉기로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로씨야가 대응조치를 취하자 제재에 동조하여나섰던 나라들이 대로씨야제재를 반대해나서고있다.

프랑스대통령은 어느 한 방송에 출연하여 《로씨야에서의 경제위기는 유럽에 있어서 유익할수 없다.》고 하면서 대로씨야제재가 중지되여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마쟈르수상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문제를 가지고 유럽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이 나라들의 중요한 부문을 틀어쥐고있다고 까밝히면서 미국이 자기의 리익을 위해 유럽나라들을 분쟁에 끌어들이는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론들은 우크라이나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대로씨야제재에 몰두한다면 유럽의 경제와 서방—로씨야관계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며 제재를 제창한 사람들자신도 로씨야의 보복조치라는 쓴약을 삼켜야 할것이라고 전하고있다. 오스트리아, 끼쁘로스 등 여러 나라들도 대로씨야제재가 《제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 《모두에게 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지휘봉에 추종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많은 나라들속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있으며 미국의 제재정책이 유럽나라들속에서도 배격을 받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현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제재책동이 시대착오적인것으로서 파탄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불행한 자본주의나라 청년들

민족의 장래는 새 세대들에게 달려있는것으로 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러나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미국을 비롯한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청년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도 깡그리 유린당한채 온갖 사회악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최근년간 학교문전에 가보지 못하고 일자리도 없이 거리를 방황한 24살미만의 청년들이 약 600만명에 달하였다. 마음껏 배우고 일해야 할 나이의 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야만 하는것이 바로 자본주의나라들의 보편적인 현실인것이다.

일본내각부가 백서를 발표한데 의하면 2013년 말까지 직업이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수가 60만명에 이르렀다.

에스빠냐에서는 29살미만의 청년 5명중 1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있다 한다.

영국에서 24살미만 청년실업자수가 약 86만 8 000명을 헤아리고있으며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약 58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고있다.

카나다에서는 지난해 3월에 청년실업률이 13.6%에 달하였다.

유럽동맹 통계국은 지난해 11월에 성원국들에서 25살미만 청년실업자수가 510만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에 오염되고 약육강식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는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은 청년들을 범죄의 길로 떠밀고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싼타 바르바라시에서 지난해 5월 23일 한 청년이 시에 있는 어느 한 대학근처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면서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6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총기류범죄는 계속되고있어 어지러운 미국사회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6일 로스안젤스시의 한 살림집에서 20대의 청년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동생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사건이 터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지난해 일본 도꾜의 북부지역에 있는 한 아빠트에서는 26살난 청년이 2살밖에 안되는 어린이를 마구 학대하던 끝에 질식시켜 죽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을 극도의 비관과 절망에 몰아넣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51010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